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4년 07월 21일
(월요일)

북부신문 5면

강북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개최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슬로건 발표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18일부터 25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주요일정을 보면 18일 10시 제7대 강북구의회 개원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 한 후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있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미아동(삼양동) 776-68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동식 의장은 회의 첫날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7대 강북구의회 슬로건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를 발표했다.

이어서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7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받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제7대 의회 슬로건인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18일 개최

의장 직권상정 ‘세월호 결의안’ 새누리당 의원들 불참속 통과



18일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진행중인 김동식 의장.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있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수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올 하반기 구정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7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받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제7대 의회 슬로건인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안전도시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구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미아동(삼양동) 776-68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북구의회는 올 하반기 주요 의사



이영심 의원

일정으로는 9월 15일부터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30일에는 규정질의, 12월 1일부터는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무난히 통과시켰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에 없다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은 안전상정 절차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날 이영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7대 강북구의회 개원후 첫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회의를 마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시급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건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서로 합의될 만한 내용이었던 것을 인지했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불쾌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다섯분의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한다. 앞으로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좀 더 주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새누리당 소속의 5명 의원 중도 퇴장, 시작부터 파행 조짐 보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18일부터 25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주요일정을 보면 18일 10시 제7대 강북구의회 개원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 한 후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있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동식 의장은 회의 첫날 제1차 본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제7대 강북구의회 슬로건으로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를 발표했다.

이어,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7대 전반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만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식 운영위원회 부의장의 "주어진 역할에 맞게 이영심 위원장을 도와 의원들 상호간의 협의에 힘을 쏟겠다"라며 심사보고를 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장동우 부의장.

시 강북구의회 회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박문수 의원의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결의안'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 결의안'에 대해, 장동우 부의장이 "사전 의논 없이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올렸음으로 의원들 간의 상의 및 회의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정회해 들어갔다.

잠시 후 새누리당 의원들 5명이 불참을 한 채 본회의가 재개된 가운데 안전이 통과되었고, 이에 이영심 운영위 위원장은 "국민 모두의 촉구 사항이지만 사

전에 협의 내용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본회의를 마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라며 "첫 출발을 하는 오늘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5분 발언에 나선 구본승 행정보건의료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6.4지방선거를 통해 느낀 것은 주민들이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 구의회는 이를 폭넓게 수렴하여 규정, 의정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PPT자료 준비해 구청에서 '월례어 우산꽃이 지원'과 주민들께서 직접 제시한 주민요구 및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사항을 폭넓게 검토하는 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박경수 구청장은 시장연설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청결도시,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행정도시 등 7가지 구정목표를 제시하며, "줄타동시(倮同時)", 즉 '병아리가 앞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다'라는 말처럼 구청과 구의회가 상호 신뢰 속에 협력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한다면 구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고 지방자치도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개회

의장 직권상정 '세월호...' 건의안 통과 새누리당 의원 불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18일부터 25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있다.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 하반기 구청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7대 전반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

고, 무엇보다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만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제7대 의회 슬로건인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안전도시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구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미아동(삼양동) 776-68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마무리 할 계획이다.

강북구의회는 올 하반기 주요 의사 일정으로는 9월 15일부터 1주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30일에는 규정질의를, 12월 1일부터는 내년 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7대 강북구의회는 첫 임시회에서 소방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은 무난히 통과시켰지만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은 새정연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영심 의원은 "강북구의회가 개원

하고 첫 회의를 했지만 다섯 분의 다른 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회의를 마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장입장에서는 시급하게 올렸다고 하지만 정말 시급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서로 합의될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더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섯분의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좀 더 주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한다. 첫 출발하는 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라며 발언을 마쳤다.

7대 강북구의회의 첫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